

제국의 언어로 제국 넘어서기  
-일본어를 통한 조선 작가와 중국 작가의 상호소통-

김재용(원광대)

1. 경계를 넘는 일본어

일본 제국 하에서 피식민지 지역의 작가들이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실제로는 언어의 장애로 인하여 쉽지 않았다. 조선의 작가들이 같은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의 고통을 겪었던 대만이나 중국의 작가와 문학에 대해 알고 하였고 하였지만 언어와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육사가 상해의 노신이나 신경의 고정의 작품을 소개하고 번역하였던 것은 매우 드문 일 중의 하나였다. 이육사가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당시 조선에 매우 많았지만 대부분 생각에 그치고 말았다. 이육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북경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기관에서 오랜 세월 중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작가들이 조선의 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동아시아 미래의 차원에서 조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굳이 알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아주 힘없는 초라한 나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한국어를 아는 작가들이나 번역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중국이 일본 제국의 위협에 놓이게 되면서 강한 반제국 의식이 짙게 되자 비로소 같은 처지에 있는 조선을 알고 하는 의욕이 생겼다. 하지만 조선의 문학어를 번역할 만한 능력을 갖춘 이들은 배양되지 않았다. 의욕은 생겼지만 능력은 여전히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제국하의 상해와 신경에서 나온 두 가지 조선문학의 번역서인『산령』과 『조선단편소설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책은 모두 일본어를 통한 중역이라는 점이다. 1936 년의 『산령』이나 1941 년의 『조선단편소설선』모두 중국의 작가들과 번역자들이 일본어로 쓰여졌거나 혹은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들을 보고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이육사에서 보듯이 조선의 작가들이 중국어에서 조선어로 직접 옮긴 것과 꺾 대조된다.<sup>1</sup> 일본어를 통해서라도 조선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려고 할 정도로 중국의 작가들과 독자들은 조선의 문학 정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보통의 관심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식민지의 연대의식을 빼놓으면 이것을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중국이 일본 제국의 위협과 침략에 노출되면서 지식인들과 작가들은 이미 식민지가 된 조선의 사정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문학에 대해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번역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책이 번역되어 나온 동아시아적

<sup>1</sup> 안수길의 「부엌녀」가 중국어로 직접 번역된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조선인들이 조선어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준 것을 그냥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동북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황을 고찰하는 것은 일본 제국하 식민지 문학인들의 연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2. 상해의 『산령』: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문제의 괴리

호풍이 1936 년에 『山靈——朝鮮臺灣短篇集』(上海文化生活出版社)을 출간할 때 참고한 일본어 번역 작품은 주로 조선과 대만의 프로문학 작품이다. 일본의 좌파 잡지와 출판사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조선과 대만의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일본의 좌파 작가들이 조선과 대만의 작품을 번역할 때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당시 일본의 좌파 작가들은 식민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식민지 문제는 전지구적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여 자본주의를 극복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발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극복되면 제국주의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생각이다. 오히려 민족과 같은 것을 고려하는 이들은 부르조아지의 계략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족과 같은 말은 금지어였다.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대립틀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 작품집에 소개된 이복명, 정우성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장혁주의 경우 번역은 아니었다. 일본의 좌파 문학인들이 보기에는 장혁주야말로 조선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의 상징이었다. 장혁주는 자본주의에 의해 피폐해가는 조선의 농촌과 마을을 너무나 잘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면서 평지의 농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 화전민이 되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자 가족이 죽거나 팔려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편소설 「산령」은 그러한 경향의 대표작이다. 또한 그는 일본어로 창작을 하였기에 번역할 필요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당시 일본의 좌파들이 장혁주에 열광하였고 그를 본받는 작가들이 조선과 대만에서 나올 정도였다. 장혁주는 특히 대만에서는 본받아야 할 모델이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어로 창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대만에서는 이미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어로 창작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선양하는 장혁주야말로 가장 본받고 싶은 작가였다.

실제로 이 단행본에 실린 작품 중에서 대만 작가 양규의 작품 「신문배달부」는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 동경으로 와 신문배달부로 고학을 하려고 하지만 벌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늘어날 뿐이다.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일본인인가 대만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계급이나 무산계급이나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본에 와서 만나 사람들 중에서도 무산계층은 자기를 이해해주지만 유산층은 그렇지 않다. 대만에서도 자산층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산층은 잘 이해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냐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이나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인이면 무조건 미워하던 주인공이 결국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일본 프롤레타리아와의 연대를 느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작품은 당시 일본의 좌파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집에 실린 다른 작품들도 「신문배달부」만큼 강하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호풍이 일본어로 창작되거나 번역된 조선 작품과 대만의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할 때에는 상황이 사뭇 달랐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호풍은 좌편에 참가할 정도로 철저하게 프롤레타리문학의 작가였다. 하지만 이 무렵에 이르면 상황이 다소 달라진다. 호풍은 무산계급의 혁명문학을 주장하다가 1934년 무렵에 이르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즉 일본 제국이 만주국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화북지역을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전제하지만 그렇다고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와 완전하게 겹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처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태도의 미묘한 변화가 있었기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의 작가들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다.

호풍의 이러한 태도는 이 책을 내면서 쓴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호풍은 최근에 이르러 중국의 민족은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기에 조선과 대만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족이란 말은 당시 조선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중국에서도 부르조아적 용어로 취급당하고 있었던 어휘이다. 민족이란 말은 바로 민족주의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부르조아적이라는 것이다. 당시 민족주의 혹은 부르조아적이라고 했던 것은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국민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를 이렇게 쉽게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호풍의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어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조선과 대만의 작품을 번역하려고 하였던 역사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중국의 좌파 문단에서는 ‘국방문학논쟁’으로 시끄러울 때이다. 주양으로 대표되는 국방문학 논자들과 노신과 호풍으로 대표되는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 논자들로 나누어져 논쟁을 하였다. 비록 호풍은 국방문학 구호 대신에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이란 구호를 내걸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이전의 무산계급혁명의 문학 구호와 매우 다른 것이었다. 물론 호풍과 노신은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이란 구호가 과거의 무산계급혁명의 문학이란 구호의 연속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의 변화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서구 학계에서도 논쟁적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호풍이 내걸었던 민족혁명전쟁중의 대중문학 구호는 단순히 코민테른의 방향전환 즉 1935년 8월에 있었던 7차 대회에서의 결정-반파시즘 인민전선-을 단순하게 추종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 작품집에 실린 작품들은 이 결정 이전에 이미 중국의 좌파 잡지에 번역되어 실렸던 것임을 고려할 때 코민테른의 영향으로 이렇게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더욱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더 있다. 호풍이 이 조선과 대만의 작품을 번역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노신의 영향도 아주 강하였다. 노신은 일찍이 소련 작품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무산계급문학을 소개하는 일을 하였다. 하지만 식민지의 작품을 번역하는 일은 특별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의 화북 지역을 집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도 태연했고 상해사변이 일어났을 때에도 동요를 하지 않았던 노신이 일본이 화북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면서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일본의 지식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본의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정도였으니 당시 노신의 심정을 짐작할 만하다. 노구찌 요네지로와의 대담에서 노신이 했던 말 “이왕 착취당할 바에야 외국인보다 자국민에게

당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이다” 라고 한 유명한 말은<sup>2</sup> 이 시기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노신의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러한 것은 이 시기에 노신이 쓴 글에서 잘 드러난다.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은 무산계급의 혁명적 문학이 한 걸음 발전한 것이며 무산계급의 혁명적 문학의 현 시기에 있어서의 진실하고 보다 광범위한 내용이다. 이런 문학은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 기초 위에서 다시 실제 전투생활을 통해 육성됨으로써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구호가 나온 것은 혁명적 문학운동의 중지로 간주되거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구호는 결코 종전에 파쇼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반동들을 반대하던 피어린 투쟁을 중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을 더욱 심화 확대하고 더욱 실제적으로 더욱 세밀하고 굴곡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며, 투쟁을 항일하며 민족반역자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구체화하고 모든 투쟁을 항일하며 민족반역자를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이 총체적인 흐름에 모아 넣으려는 것이다. 또 그것은 결코 혁명적 문학이 자기의 계급적 영도 책임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당파를 불문하고 전 민족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하고 더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민족적 입장이 바로 진정한 계급적 입장이다.<sup>3</sup>

노신과 호풍이 국방문학논쟁 과정에서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이란 구호를 내걸었던 것은 주양 등의 공격에 단순히 방어적 차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단행본은 미묘한 긴장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호풍은 민족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획을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작품에 실린 작품들은 과거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경향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당시 호풍이 선택할 수 있는 조선과 대만의 작품은 일본어로 창작되거나 번역된 것밖에 없고 또 이들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한 입장과 부합하는 작품을 고르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서 있는 작품들 중에서 조선과 대만의 민중들이 겪는 고통을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괴리는 호풍을 비롯한 중국의 문학인들이 조선어를 직접 읽을 수 없어서 일본어를 통하여 작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제한성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과 대만의 작품을 폭 넓게 읽을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조선과 대만의 작품을 이렇게라도 번역하고 소개하여 중국인민들에게 일본의 제국주의적 위협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노력이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신경의 『조선단편소설선』: 반제국적 지향과 시선의 착종

<sup>2</sup> 堀まどか, 『二重國籍詩人 野口米次郎』(名古屋大學出版會, 2012)

<sup>3</sup> 魯迅, 「論現在我們的文學運動」, 『魯迅全集, 6 卷』(人民文學出版社, 2005) 612 쪽. 한국어 번역은 『노신전집 4』(여강출판사, 2004)를 따름.

1941년 7월 만주국 신경에서『조선단편소설선』이 나왔다. 일제하 조선의 작품이 중국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으로는『산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하지만『산령』이 조선뿐만 아니라 대만의 작품도 함께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조선문학선집으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제9회 식민주의와 문학 포럼에 참가하여 발표한 바 있는 만주국 문학 연구자인 大久保明男에 의하면<sup>4</sup>, 이 책의 편자 王赫은 국민당 좌파의 일원이었고 1942년에 항일의 죄명으로 옥사한 王覺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당시 이 책을 편집했던 편자는 작품집『산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조선단편소설선』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지만 이 책이 나온 후에 나온 陳因의 서평을 보면『산령』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하게 나온다.

현대의 조선민족은 그 형세에 있어서 우리와 아주 근접하지만 그 뜻에서는 깊은 간극이 있다. 압록강을 분계선으로 이웃하여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는 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우리와 삶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 뜻의 소통, 감정의 교류는 모두 아주 빈약하여 간간히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전히 뜻의 소통이다. 이것만이 협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건설의 효율에 있어서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뜻의 표현에 있어 제일 어울리는 도구는 문학이다. 두 민족의 교류도 문학의 소개와 이해에 있을 것이다. 비록 조선은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문학에서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문학을 알고 있고 나아가 북유럽문학까지도 알고 있지만 조선문학에 대해서는 망연자실하다. 그렇다고 조선에 문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들의 문학이 국제적 수준에 미달한 것도 아니다. 설령 수준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양 문학의 소통을 위하여서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들 내부에서라도 어떤 하나의 수준이 있을 것이며 이를 취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오히려 이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들의 현황과 문학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 과거에 호풍이 번역한『산령』에 실린 네 편의 소설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장혁주를 알았다.<sup>5</sup>

서평자의 이런 언급을 미루어 볼 때 편자인 왕혁 역시『산령』의 출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작품집은 대만의 작품을 함께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작품이 불과 네 편밖에 수록되지 않았기에 중국 독자들의 독서욕을 만족시키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성격의 책을 출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작품집에 모인 것들은 이미 만주국의 잡지와 신문에 실렸던 것들을 추린 것들이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것으로는 잡지『명명』 1937년 12월호에 실린 것이 가장 이른 시기에 번역되어 발표된 것이고, 마지막이 잡지『華文大版每日』 47호인 1940년 10월호에 실린 것이다. 물론 당시 잡지『作風』 1940년 11월 역문특집에 실린 작품들도 이 책에 수록되었다는 회고가 있기는 하지만 실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이 1941년 7월임을 감안하면 늦게 잡아도 1940년 말인 것이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의 시기에 만주국의 잡지와 신문에 실린 조선문학의 중국어 번역 작품들을 추린 것임은

<sup>4</sup> 大久保明男, 「만주국의 조선문예에 관한 고찰-중국어 신문 잡지의 일별」, 『일본 제국하/후의 동북아 문학』, 2013년 11월

<sup>5</sup> 陳因, 「朝鮮文學畧評」, 『盛京時報』, 1941년 10월 1일

분명하다. 또한 각 작품들의 번역자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산령』의 경우 편자인 호풍이 작품을 일일이 선정하고 그 다음에 번역하여 잡지 등에 발표하였다가 이 책으로 묶은 것이다. 반면에 이 책의 편자가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작품을 고르고 번역하여 묶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책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 책의 성격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장혁주 작품의 번역과 그 시기이다. 이 작품집에는 장혁주의 작품 「늑대(山狗)」와 「이치삼(李致三)」 두 편이 나란히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늑대」는 1934 년과 1935 년에 일본과 조선에서 일본어와 조선어로 각각 발표되었다가 후에 만주국에서 발간되던 잡지 『明明』에 중국어로 번역되어 실렸다. 「이치삼」은 1938 년 2 월에 『제국대학신문』에 일본어로 발표되었다가 중국어로 번역된 후에 만주국의 잡지 『黎明』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黎明』잡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을 알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장혁주가 여전히 중국 내에서 조선의 가장 진보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 책에 실린 그의 작품들은 장혁주가 1939 년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에 투항하기 이전의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일본 좌파 문인들의 후원 속에서 장혁주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견지하면서 작품을 쓸 무렵에 나온 작품들이다. 즉 자본주의의 연장으로서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일관되어 있는 작품이 이 책에 실려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책 전체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이 책의 대부분은 조선에서 이미 한국어로 오래 전에 발표되었다가 1939 년 이후 ‘조선봄’의 열기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 잡지에 실린 것들이다. 김동인의 「붉은 산」, 이효석의 「돈」, 이태준의 「까마귀」, 이광수의 「가실」 등이 그러하다. 이 작품들은 중국어로 다시 번역되어 잡지에 실렸고 이것 중에서 편자가 선택하여 책에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 중에는 이 책이 출판될 시점에서 거리 멀지 않은 무렵에 나온 것들도 있다. 김사량의 「월녀」와 유진오의 「북남이」는,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1941 년 5 월 18 일 일본에서 출간되던 『週刊朝日』의 반도작가특집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 작품들은 중국어 잡지에 발표되지 않고 바로 이 작품집에 실렸다.

『산령』은 편자가 직접 작품을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유사한 성향의 작품을 골라 번역하였기 때문에 편자의 편찬 의식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조선단편소설선』은 각 작품을 선정하고 번역한 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편찬의식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편자인 왕혁이 이미 중국어로 번역된 작품들을 다시 골랐기 때문에 편찬의식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작품집에는 일본에 대한 협력을 하는 작품은 전혀 없다. 여기에 수록된 작가들 중 이광수, 장혁주는 이 책이 나올 무렵에는 친일협력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작품들은 1939 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색채가 전혀 없다. 당시 만주국에서 국민당 좌파로 활동하던 왕혁이기 때문에 일제에 협력하는 작품들을 고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일관된 편자의 의식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산령』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혼란상은 당시 만주국 문단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이 나온 후 진인은 서평을 썼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많지만 이 책의 혼란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김동인의 「붉은 산」에 대한 논평이다. 편자인 왕혁은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만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선택한 것이다. 이 작품집에서 맨 처음에 배치한 것도 바로 이러한 관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평자인 진인은 이 작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문제성을 거론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조선의 농민과 현지의 농민 사이에는 충돌이 심심찮게 있었다. 종래로 이른바 이중국적의 보호하에서 사실을 쓸 수 있는 작가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작가를 동정한다. 그가 원한을 품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핍박에 의해 방랑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욱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어렴풋하고 험애한 민족적 테두리에서 유희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작가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김동인의 「붉은 산」은 눈이 먼 민족주의에 입각한 작품이어서 당시 동북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국의 학계 내에서도 이미 거론된 바 있다.<sup>7</sup>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서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겪는 충돌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중국인의 억압에 대한 조선인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룸으로써 그 실상을 놓쳐 버린 것인데 평자 진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험애한 민족적 테두리’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편자인 왕혁은 만주의 조선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선정하였지만 평자인 진인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상에서 불구하고 이 선집은 조선의 다양한 작품을 실어 한국문학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시선만이 존재하는 『산령』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제국의 언어, 반제국의 언어

『산령』과 『조선단편소설선』은 출판된 지역과 편찬 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중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 각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노신과 호풍이 『산령』을 번역하여 출판할 무렵은 일본 제국이 동북 지역을 넘어 화북 지역을 침략하려고 다양한 사건을 만들 때이다. 노신과 호풍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입장을 수정하여 식민지 민족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이다. 1932년 자기가 살고 있던 상해 지역에서 상해사변이 일어났을 때에도 노신이 끄덕하지 않은 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국민당과 일본 자본주의의를 동일시했던 시각이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화북 지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무산계급혁명문학의 구호를 버리고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바로 『산령』을 번역 출판하였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이 1937년 ‘치외법권철폐’를 통해서라도 만주국이 독립국가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려고 하였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만주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해 저항했던 것이 바로 『조선단편소설선』이 번역 출판되었던 역사적 배경이었다. 『조선단편소설선』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중국어로 처음 번역되어 잡지에 실렸던 장혁주의 「늑대」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 1937년이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 제국이 만주국을 건설한 후 독립국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행했던 일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치외법권철폐가 공포되던 해에 중국의 문학인들은 자신들이

<sup>6</sup> 陳因, 「朝鮮文學畧評」, 盛京時報, 1941년 10월 8일

<sup>7</sup> 이상경, 「1931년의 배화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집』, 2011.6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같은 식민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조선의 작품에 눈길을 돌렸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식인들은 조선어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일본어로 번역된 조선문학 작품 중에서 골라 중역을 시도했다. 식민지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의욕이 언어의 문제를 넘어섰던 것이다. 그들이 중역의 불완전함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의 문학을 통하여 조선인들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일본 제국의 위협하에 놓여 있던 자신들의 미래를 가늠해보고 삶을 성찰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반제국의 언어로 전유하는 지혜이다.



